목장 모임 교재 2017년 05월 21일(주일)

“그리스도인의 가정”

에베소서 5:22-25

사회 비평가 존 러스킨은 ”인류 역사는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가정의 역사이다.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가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없고, 한 나라의 생존은 가정의 생존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정은 국가의 근본 세포를 형성한다”고 했는데, 이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많아야 건강한 국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이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의 화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무척 힘든 일입니다.
미국의 통계로 매 10-13 초 만에 누군가의 가정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참으로 가정이 행복해지는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첫째, 성경은 늘 가정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아내부터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아내의 영향력이 가정에서 지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은 아내가 세운다고 했습니다
(잠 14:1)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은 31 장은 아예 한 장을 아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 31:10)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잠 31:11)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잠 31:27)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잠 31:28)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잠 31:29)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인생에 다섯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스승, 친구, 직업, 종교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배우자입니다. 사람들은 그 누구나를 망론하고 배우자 선택에 따라 그의 가정이 평생토록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처를 만나면 일생의 풍작이요, 악처는 일생의 흉작이라" 아합 왕은 이세벨이란 우상숭배 단지를 만나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속담에 "거친 바다로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전쟁터에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 그러나 결혼식에 나갈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결혼이 인생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엡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엡 5: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엡 5:24)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부부관계를 말할 때 아내의 역할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 때문이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입니다.

<남편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
1) 질서입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창조의 순서입니다.
(창 2: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창조적인 순위를 보게 되면 남자가 먼저 태어나게 되고 그리고 남자 속에서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남자가 여자를 앞서 인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원리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창조의 목적입니다.
(고전 11: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라
오늘날 세계가 아무리 남녀동등권이다, 우리는 다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남자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라는 남편을 인정하지 않는 아내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 아내들은 남편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벧전 3: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자기 목숨을 부지하지 위해 두 번이나 누이라고 속여 다른 남자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라는 남의 아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주라고 받들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은 순종보다 더욱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복종은 하기 싫어도 스스로 종이 되어서 강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격 있는 남편, 나에게 끔찍하게 해주는 남편, 능력 있는 남편이라면 복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잘 못입니다.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세운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 사랑을 생명을 다한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엡 5: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내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남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창 2: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란 약한 부분을 채워서 완전한 존재로 만드는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a helper suitable for him 즉 가장 적합한 협력자라는 뜻입니다. 결국 남자는 여자를 통해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엡 5:28)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남자의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가장 큰 사명은 사업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 도와 완전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엡 5:31)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엡 5:32) 이 비밀이 크도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모자라게 만드신 것은 서로 돕고 보완함으로 써 완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완하게 하셨을까요?
1) 성격을 보완
완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서로가 다름을 이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2)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다
(고전 7:4)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결혼함과 동시에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병들면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집니까? 자식이 집니까? 친척이 집니까? 아내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합니다.
아내가 병들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기 건강을 자기가 돌보아 병들면 안 됩니다. 부부의 몸은 자기 몸이 아닙니다.
3) 부부는 신앙적으로 서로 보완해야 합니다.
부부가 다 신앙이 좋으면 정말 좋지만 그런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서로 지켜 주어야 합니다

셋째,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시 128: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심리학자였던 존 고트만 박사는 20 년간의 부부생활에 대한 연구에서 밝혀 낸 그 성공의 비밀은 토마스 에디슨의 천재에 대한 정의와 같이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 요구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행복은 자연히 임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여 사는 것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보통 힘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 온 과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팀플레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팀플레이는 고도의 훈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상적인 팀플레이를 하여 세계를 정복하는 운동선수들은 생각과 습관과 행동의 일치를 가져오기 위해서 함께 숙식하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것은 땀과 희생과 수고 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교훈집 탈무드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행복에서 불행으로는 한 순간이다. 그러나 불행에서 행복으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어떤 부부가 지금 이 순간, 행복에 젖어 있다고 하여, 그리고 서로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여 서로에 대한 존경심과 관심을 가지는 일에 태만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한 순간 안에 불행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부부생활과 가정은 누가 거저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힘을 써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가정이라는 것 은 정원과도 같다."고 하였습니다.
정원에 꽃과 나무가 있다고 저절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될 뿐입니다. 물을 주고, 햇볕이 잘 들 게 하고, 통풍도 잘되게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꽃이 피는 화원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들이 서로서로 정원의 꽃을 가꾸듯이 물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를 주고, 해충을 잡아내는 노력을 해야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과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자매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 내 생활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형제들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 내 생활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서로를 탓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노력' 해야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세요)